

결 정

2018 - 306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성완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종순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1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 「“허경영, 26살 연하가수 최사랑과 3년째 열애중?” 공식..」 라는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24일자 「허경영과 ‘열애설’...26세 연하 최사랑은 누」 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와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screenshot shows the JoongAng Ilb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site name '일간스포츠' and a green banner for '나눔스퀘어 Light ExtraBold 추가!'.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and a main headline: "허경영, 26살 연하가수 최사랑과 3년째 열애중?" 공식.. This headline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headline, there are several article thumbnails with images and titles. The first thumbnail features a woman's face and the title "설현, 자켓 아래 망사로만 가려 드러난 '골벽'". Other thumbnails include "영성! '무기력의 끝'...김봉길호, 결승 좌절", "한파에도 발끝까지 시스루.. 여성들의 레드카펫", "나탈리 포트만 '13살' 레옹' 당시 성희롱 당했다" 핫이슈, and "호남두, 경기중 '피 절절' 흘리며 스마트폰 찾아 핫이슈". On the right side, there are sections for 'EXCLUSIVE' (유인영 한혜진과 호흡 MBC '손 꼭 잡고...' 합류), 'HOT PHOTO' (김세벽, 치마 밑은 왜 다리를 적격으로..), and 'COLUMN' (언제부터 우즈베크이 두려운 상대였나).

<캡처시각 18. 1. 24. 00:40>

(일간스포츠)= 『허경영 측 ”가수 최사랑 열애설 사실무근”』

[일간스포츠] 입력 2018.01.23 19:19

민주공화당 전 총재 허경영(68)이 때 아닌 열애설에 황당해했다.

허경영은 가수 최사랑(26)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3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에 허경영 측은 "최사랑과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허경영과 최사랑은 2015년 중순 허 전 총재가 작사한 '부자되세요'를 함께 작업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신곡 '국민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친분은 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지 기자』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11790>

아시아투데이 혼자가 된 아이들을 돕는 2월 커피빈 기부카드

구독해지 | 이용자 한마디 | 01-24 08:26 편집

北 “2월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서 공연”

오늘의 주요기사

아베 “평창올림픽 참석...文 대통령과 회담하고파”
 韓, 조세회피처 오명 벗었다...EU 블랙리스트서 ...
 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나경원 평창조직위 파면’ 국민청원 사흘새 20만...
 [사실] 16년만에 등장한 미국의 한국산제품 세...

이슈&테마 **국민** 카드뉴스 **심리**
 허경영과 '열애설'...26...
 위미로 쓴 발자, 들기면...
 새 연하 최사랑은 누...
 서 재테크하는 '취미'

많이 본 뉴스

- 1 '해양플랜트 강자' 삼성중공업, 올해 마수걸이...
- 2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남쪽 583km 해역서 ...
- 3 한국도로공사 채용,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입...
- 4 셀트리온, 4분기 잠정실적 발표로 멈춘 하락세
- 5 듀랑고, '자동'이란 글레에서 벗어난 진정한 '...

法,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2년 ...
 박수현 靑 대변인 '사의 표명'...김의겸·진성준 물...
 의정부 제일시장 화재 큰 불길 잡혀...인명피해 ...
 美 알래스카 앵커리지 남쪽 583km 해역서 8.0 강진

<캡처시각 18. 1. 24 10:00>

(아시아투데이)= 『최사랑 누구? 허경영과 ‘국민송’ 부른 26세 연하 가수

온라인뉴스부 | 기사승인 2018. 01. 23. 18:23

허경영 전 총재가 가수 최사랑과의 열애설을 부인한 가운데 최사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최사랑은 1976년 생으로 지난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최사랑은 데뷔 전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왔지만,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잠시 꿈을 접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사랑은 지난해 12월 허경영과 함께 디지털 싱글곡 '국민송'을 발표했다.

한편 23일 TV리포트는 허경영이 26살 연하의 가수 최사랑과 3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허경영 측 관계자는 이날 다수의 매체를 통해 "최사랑과의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음반을 낼 때 최사랑이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그 외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news@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23001821098>>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가수 최사랑과의 열애설을 부인한 가운데 최사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허 전 총재가 열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기사에 언급했음에도 뉴스스탠드의 제목은 본문 제목과 전혀 다르게 열애 중이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열애중?」 공식...」 이라고 하거나 「‘열애설」 등 마치 열애에 방점을 찍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